

중랑구의회, 2020년도 첫 임시회 마무리

2020년 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후 폐회

중랑구의회는 2월 7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7회 새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3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월 3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처리에 이어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다. 이어서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상정된 7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발전적 의견제시 및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뜻깊은 회기” 강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조치 및 방역 철저” 당부

이날 조희종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올해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발전적인 의견제시와 더불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주는 등 뜻깊은 회기였다”고 전했으며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방역대책에 온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환자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과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 진행

상인들의 애로사항 및 시장 방문객 의견 청취

중랑구의회 의원들은 1월 22일 동원시장, 우림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전통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설명절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 및 시장 방문객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조희종 의장은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통시장에서의 소비가 줄어 상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하며 “전통시장이 살아야 서민경제도 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자주 방문하여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우리 구의회에서도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중랑구의회, 코로나19 관련 현안업무 보고받아!

신속한 정보전달과 철저한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확산방지 및 구민 불안감 해소 강조

중랑구의회 의원들은 1월 31일 중랑구청 종합상황실에서 코로나19 예방대책 및 관리현황 등과 관련하여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로부터 경과보고 및 환자조치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보고를 받은 후 의원들은 감염병 대응체계, 방역관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구청 및 의료기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빈틈없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또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내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희중 의장은 보건소 등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면서 “모든 구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전달 및 예방 행동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감염예방을 위해 과하다 싶을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의회 동정



본회의장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

중랑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에 불편한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중랑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우리 구의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중랑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중랑구의회 ☎02-2094-2000